| 현불 논단 |

'보살 검사' 죽음이 남긴 것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9월 과로사로 세상 떠난 35살 검사
그의 수첩엔 '마음챙김' 이란 글 수록
대인관계, 일에 대한 열정 등 담겨

인생에서 스스로 지키고자 한 계율
그의 마지막에서 보살의 모습 본다

보살 정신은 타인 대한 배려서 비롯
현대윤리학서도 '배려 윤리' 중요해
자비 윤리 정립 · 실천 한국불교 과제

어느 검사의 죽음에 가슴이 아프고 짠하다. 지난달 7일 천안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천안 지청의 35살 이상돈 검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밤늦게까지 사건을 처리하고 관사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119구급요원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그는 떠났다. 부검 결과 과로사로 판정되었다.

그는 30살 아내와 3살 아들을 두고 떠났다. 장례를 마친 아내가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다 발견한 낡은 수첩의 내용이 잔잔한 화제가 되어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만든다. '마음챙김(Mind setting)'이라는 제목으로 쓴 내용을 보면 "아, 이 분은 보살 검사이구나"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의 낡은 수첩에는 "항상 남을 배려하고 장점만 보려고 노력하자",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지내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애정을 보이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겸손하자", "일은 열정적이며 완벽하게 하자"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것은 삶의 여정에서 스스로 지키자고 정한 자신의 계율이라고 볼 수 있다.

주변의 동료 법조인들은 고인이 이 계율을 철저히 실천했다고 하면서 그의 떠남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한다. 천안지청과 그의 동기 검사들은 그의 어린 아들을 위해 장학금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그의 아내는 아들을 '난 사람'이 아닌 '된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하니 더욱 마음이 찡하다.

보통 사람들은 검사라는 용어에 어두운 권력의 그림자를 느낀다. 정치권력과 부정부패 등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많은 영화들에 나타난 검사들은 권력과 돈의 편에 서 있는 다수의 '부정의의 검사'와 이에 저항하는 소수의 '정의의 검사'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는 '정의의 검사'가 이기길 간절히 바라면서 조마조마하게 영화를 본다. 정의로운 검사가 이기면 우리 모두가 이긴 것처럼 쾌감을 느끼며 극장을 나온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살의 검사'를 만나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그의 죽음을 통해서.

보살의 기본 정신은 배려다. 배려는 타인에 대한 따뜻함에서 나온다. 현대 윤리학계에서도 '배려윤리(care ehics)'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양의 근현대 윤리의 주류는 정의의 윤리라고 볼 수 있다. 정의윤리는 인간 이성에 바탕을 두고 보편적 법칙, 즉 정의를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윤리는 차갑다. 그리고 정의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타인에 대한 따뜻함과 공감을 강조하는 배려윤리가 등장한 것이다.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는 듯 하는 것이 배려의 원형이다. 보살의 형상이 여성으로 나타나듯이.

배려는 바로 자비의 실천이다. 붓다의 연기법에서 자비사상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 연기에 대한 깨달음은 자신의 존재와 삶이 우주적 연쇄의 존재가 주는 선물임을 알고 다른 존재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비는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는 사랑을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해 확장하는 것이다.

불교는 자비라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을 뜰 생각보다 그릇 자랑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다. 우리 사회의 갈기갈기 찢어진 도덕적 그물망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비 정신을 오늘의 연기에 맞게 틀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본다. 자비 윤리의 정립과 실천이 한국 불교의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

지구별을 떠난 이상돈 검사를 애도하며, 배려의 자비행을 한 그의 업이 이 세상을 밝게 비추길 바란다.

社說

조계종 17대 중앙종회에 바란다

"비구(니) 아무개는 중앙종회의원에 취임함에 있어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종헌 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중앙종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삼가 삼보전에 맹세합니다."

조계종 종헌종법에 따라 중앙종회의원이 임기 시작과 함께 본회의서 다짐하는 의원 선서 내용이다. 오는 11월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17대 중앙종회의원들은 개원종회에서 이 선서문을 낭독한 뒤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간다.

임기가 만료되는 제16대 중앙종회는 역대 어느 회기와 비교해 봐도 적지 않은 입법활동을 펼쳤다. 총무원장선거 직선제안을 비롯해 멸빈자 사면 관련 개정안 논의까지 다사다난한 4년을 보냈다. 물론 논의만 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유야무야 된 사안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기된 종법 미비사항을 처리하는 데는 부족했다는 점이다.

특히 16대 종회는 이례적으로 두 번의 총무원장선거를 치르며 선거법상 미흡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한 번의 총무원장 불신임을 결의하면서도 종법 절차상 보완돼야 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키는 어렵다.

이제 공은 제17대 종회에게 넘어갔다. 16대에 비해 재선의원이 대폭 늘어난 17대 종회다.

그만큼 지난 종회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새롭게 꾸려진 제36대 총무원 집행부와 함께 종단 안팎에 더 이상의 갈등과 비방이 없도록 공정하고 원활한 입법활동을 펼쳐주길 종도들은 기대한다.

청년들 존경할 때 청년포교 이뤄진다

빙판길을 가다 넘어지면 아플까. 이른바 쪽이 팔릴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힘들지'하며 억지 도움이나 조언을 주려고 하면 이들은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10월 6일 방송인 김제동 씨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청춘토크콘서트에서 좌중에 던진 화두다.

이날 모인 청년불자들의 답은 명쾌했다. 빙판에 넘어지면 함께 넘어진 사람이 좋다는 것이다. 이른바 덜 쪽팔리게 하는 공동체가 있어 안심이 된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아픔은 이들의 상황이 되어 볼 때 느낄 수 있고, 그 해답도 그렇게 해야 나온다. 동체대비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외친다. 포교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좋아할까. 불교를 믿을지 말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말이다.

같은날 인근 국제회의장에서는 서울대학교 불교학생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불교 청년 전법의 현재와 미래'가 열렸다.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성세대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청년들의 모든 고민을 기성세대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저 응원하고 격려할 뿐이다. 청년시절 어려웠던 기억을 떠올리고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수 밖에 없다. 이들에게 무턱대고 대학생 불교동아리에 가입하라, 동아리 조직력을 강화하는 주축이 되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저 돌부처처럼 힘들 때 잠시 바라만 봐도 좋은 어른들이 필요하다. 기성세대, 불교계가 청년 포교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청년들이 부끄러워 하지 않는, 존경할 수 있는 기성세대, 불교가 되는 것 말이다.



특별기고

불교언론에 바라는 세 가지 제언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세상 구석구석의 변화 속도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신문, 방송과 같은 미디어의 세계도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의해 엄청난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수세기 동안 주류 미디어로 자리해온 종이신문이 독자 감소로 경영 위기에 처해있는가 하면, 텔레비전은 낮은 시청률로 미디어로서의 영향력과 수명을 낙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신문과 방송 중심이었던 미디어 세상이 인터넷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1인 미디어, 소셜미디어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디어의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언론은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불교언론 역시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같은 도전에 있어서 불교언론은 '독자'라는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불교언론의 역할을 모색하고 혁신 전략을 수립해가야 한다. 첫째, 불교언론은 독자와 함께(공존)하는 언론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즉 독자인 불자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불교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미디어의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독자는 정보와 채널의 선택에 있어서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불교언론의 독자는 누구인지, 그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독자층을 구축하여야 한다. 인터넷 시대에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뉴욕타임즈〉와 같은 권위지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독자층을 구축하고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상시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언론으로서의 사회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 독자의 충성도를 높여야 한다. 언론에 있어서 충성도의 핵심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에 달려있다. 이를 위하여 불교언론은 불교계의 이슈는 물론이고 사회의 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신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비판하고 보도함으로써 불교계의 공기(公器)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불교언론이 전문매체로서 독자의 신뢰와 충성도를 얻어내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독자의 디지털 수요와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불교계의 디지털 혁신에 기여해야 하다. 디지털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다. 독자들은 이제 더 이상 텍스트로만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지 않는다. 종이로만 읽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보를 수용하기를 원한다.

세계적인 권위와 전통의 신문인 〈워싱턴포스트〉가 아마존이라는 IT기업에 인수된 것을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가. 불교언론은 종이매체 외에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불교언론은 전문매체로서 정보제공을 통해 불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불교적 관점으로 풀게 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관이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기여해야 한다.

미디어 지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교언론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장기적 생존은 이 같은 당위론적 주장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불교언론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도전에 당당히 마주서야 한다. 인간의 정보추구 욕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앞으로 더 커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